

2013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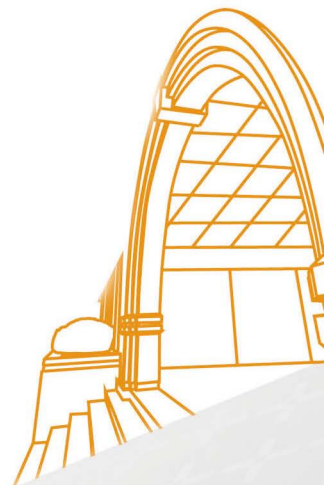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 지원체계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이미정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 지원체계 개선방안*

수행 과제명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이미정 연구위원

 Tel: 02-3156-7154

 e-mail: mjinglee@kwidimail.re.kr

요약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발생이후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고충과 2차 피해에 대한 사례,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피해자 지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함.

1 배경 및 문제점

- 최근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와 지원 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으며, 낮은 성폭력 피해 신고율과 피해자가 경험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미정·이인선·김기현(2013).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하는 2차 피해 문제는 피해자 시각에서의 지원체계 검토 필요성을 증가시킴.

- 지원체계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26명과 성인 성폭력피해자 11명, 총 37명의 성폭력피해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성폭력 발생 이후 신고 및 고소, 피해자 지원 시스템 접근 및 이용 경험, 재판, 종결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따라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음.

- 사례 분석을 위해 다음의 분석틀을 활용하였음. 1)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2) 성폭력 자각 및 노출, 3) 성폭력 신고 및 조사·진술, 4) 지원기관 접근 및 초기 위기개입 서비스 이용, 5)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6) 재판, 7) 성폭력 2차 피해, 8)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향후 미래.

2 조사 및 분석결과

■ 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존 연구

- 성폭력은 발생사건 중 극히 일부만 보고되는 암수율이 높은 범죄로 범죄통계와 조사통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검찰의 성폭력 관련 통계는 신고 및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자료로 실제 발생한 사건의 일부만이 범죄통계로 파악되는 바 범죄통계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에 노력해야함.
- 성폭력 사건의 실상과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사건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는데 언론에서 소개하는 성폭력 사건은 낯선, 흉악한 가해자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들이 다수이나 기존 실태조사에서 가해자의 70-80%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 남성중심 성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폭력 피

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순결상실’이나 ‘행실의 문제’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여성이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움.

- 성폭력범죄 기소와 판결을 결정짓는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사회통념에 기초한 ‘피해자상’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여아는 자신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 남성에게 의해 주기적으로 성적 폭력을 당하기 쉬운데,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기 보다는 이웃, 가족의 친구, 삼촌, 사촌, 계부, 친부가 대다수임(Herman, 1981).
- 국내 친족 성폭력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생계 책임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었거나,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재혼한 남편의 학대로 무기력한 경우에 딸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정정희, 2011). 또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족의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음. 친족 성폭력은 복잡한 가족 관계와 역동으로 가족 스스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 성폭력 관련법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개정의 주요 흐름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임.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처벌의 정도가 가중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서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통해 성폭력 방지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왔음.
- 2012년 개정에서 친고죄 규정이 전면적으로 삭제가 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수사 및 고소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성폭력상담소, 성폭력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있음.
-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 중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있으며,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치유 및 교육, 구직알선,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3월 16일 처음 시행된 법률조력인제도는 법률조력인이 피해자 상담과 자문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경찰 또는 검사가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 및 동행하여 법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 절차 출석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3.6.19부터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등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폭력피해자가 원활한 수사·재판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2013.12.19부터 수사·재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 5명의 가해자가 성인인 친족성폭력 피해자

〈표 1〉 가해자가 성인인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분포

사례 번호	인터뷰		성별	연령	피해 연령	피해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횟수							
A-1	본인	1	여	만20세	7세-고2	친족성폭력 (강간)	피해자 집	친부	고소
	A-1모	2							

사례 번호	인터뷰		성별	연령	피해 연령	피해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횟수							
A-2	본인	1	여	만19세	초5,6	친족성폭력 (강간)	피해자 집	친부	고소
A-3	본인	1	여	만21세	초5	친족성폭력 (강간)	피해자 집	친부	고소
A-4	본인	1	여	만18세	초-중2	친족성폭력 (강간)	사촌 집	사촌 오빠	고소
A-5	본인	1	여	만19세	중1-중3	친족성폭력 (강간)	가해자 집	삼촌	고소

- 친족 성폭력은 아동기에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외부로 노출이 지연되는데, 노출의 정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피해아동이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년기에 도달하며 성폭행 피해를 인식하고 가해자에게 대항하며 피해사실을 외부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친족 성폭력은 장기간 반복된 피해 경험으로 기억력 저하와 같은 후유증과 맞물려 구체적 진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으며,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사건 노출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라 판단됨. 피해아동이 처음 누구에게 노출하며 처음 인지한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사례 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들에게 쉼터 및 주거 지원은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해아동들은 집을 떠나 쉼터에서 안정을 찾고 같은 처지의 또래들로부터 치유도 받지만 시설이나 학업 및 학원비 지원 등은 개선이 필요했음. 피해가 노출되어 신고하고 긴 재판을 마치고 나면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년기, 즉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르게 되는데 피해아동들이 이 시기 발달 과업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6명의 가해자가 또래인 친족성폭력 피해자

〈표 2〉 가해자가 또래인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분포

사례 번호	인터뷰		성별	연령	피해 연령	피해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횟수							
B-1	본인	1	여	만23세	초2-초5,6	친족성폭력 (강간)	피해자 집	친오빠	고소 안함
B-2	본인	0	여	만12세	초3-초5	친족성폭력 (성추행)	조부모 댁	사촌 오빠	고소
	B-2 모	1							
B-3	본인	1	여	만22세	초4	친족성폭력 (성추행)	피해자 집	친오빠	고소 안함
B-4	본인	1	여	만15세	초5-중1	친족성폭력 (강간)	피해자 집	친오빠	고소 안함
B-5	본인	1	여	만18세	중2	친족성폭력 (강간)	피해자 집	사촌 오빠	고소 안함
B-6	본인	1	여	만18세	중2-고3	친족성폭력 (성추행)	피해자 집	남동생	고소 안함

- 친족·또래 성폭력 피해자들의 가해자는 남자 형제나 사촌 오빠였고 성폭력 유형은 성폭행이나 심한 성추행이 주를 이루었으며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음. 사고 당시 양친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건이 노출됐을 때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부모는 많지 않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식이거나 조카이기에 사건이 노출되었을 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거나 억압하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음. 가족들의 이런 반응들은 성폭력 피해 자체보다 더 큰 상처를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며, 이것이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기에 피해 사실을 억압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기에 심한 후유증을 경험하며 지원기관을 찾는 사례들이 발견되었음.
-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친족·또래 성폭력 특성으

로 지원 기관을 찾는 시점도 사건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후유증이 심해진 후인 경우가 많았음. 지원기관에서의 서비스도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중심으로 제공되었는데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친족·또래 피해자들에게 지원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친족·또래 피해자들은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가진 경험이 많았는데 성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컴퓨터로 보냄으로써 학업 공백으로 재적응 어려움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음. 피해 아동들은 지원 기관의 인력확충, 상담 서비스 외에 기술 및 직업 교육 등을 서비스 확충 및 개선점으로 제안하는 바임.

● 6명의 가해자가 성인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표 3〉 가해자가 성인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분포

사례 번호	인터뷰		성별	연령	피해 연령	피해 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횟수							
C-1	본인	1	여	만22세	초2	강간	동네 뒷산	선생님	고소 안함
C-2	본인	1	여	만22세	초6-	성추행	피해자 집	모의 남자친구	고소
C-3	본인	0	여	만20세	중1	성추행	피해자 집	동네 군인	고소
	C-3모	1							
C-4	본인	1	여	만20세	중1-2	강간	가해자 집	동네 아저씨	고소 안함
C-5	본인	1	여	만19세	고2-고3	강간	피해자 집	동네 주민	고소
C-6	본인	1	여	만16세	중2-중3	성추행	피해자 집	동네 주민	고소
	C-6모	1							

- 비친족·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특성을 보면 가해자가 동네 주민이나 학교 선생님, 모의 남자 친구 등 아동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 경우는 한 사례뿐임. 3건이 강간, 3건이 심한 성추행이었으며 4건이 한 번의 성폭력이 아닌

수회에 걸쳐 1년 이상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음.

- 성폭력이 발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간의 권력관계가 중요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가족은 부모와 아동이 모두 정신지체인 사례가 1건, 부모가 정신지체인 사례가 1건, 부가 우울증과 도박 중독이었던 사례가 1건 등 피해자 가족의 취약성을 악용해 아동 성폭력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도서 및 농어촌 산간 지역의 경우 공식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실질적 효력이 닿지 않아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정보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음. 이런 공식적, 비공식적 체계의 취약성들로 피해자 가족은 살던 곳을 떠나 지원기관이 있는 대도시로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쉼터나 피해자 거주 지원시설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
- 사건 노출 과정에서 성교육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며, 피해자 대 다수가 가해자 출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사 재판과정 등 피해자 거주지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었음.

● 5명의 가해자가 또래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표 4〉 가해자가 또래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분포

사례 번호	인터뷰		성별	연령	피해당시 연령	피해 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횟수							
D-1	본인	2	여	만20세	고2	성폭행	친구 집	또래친구들	고소 안함
D-2	본인	2	여	만18세	고3	강간	가해자 차안	헌팅 남	고소
D-3	본인	0	여	만20세	고3	강간	호프집	학교 동문	고소
	D-3모	1							
D-4	본인	1	여	만18세	고1	집단 강간	놀이터	동네 또래들	고소
D-5	본인	1	여	만19세	고2	강간	건물옥상	또래 남학생	고소
	D-5모	2							

- 또래에 의한 비친족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 연령이며 가해자가 다수인 집단 성폭력이 특징이었음.
- 술과 약물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동영상이 연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동영상은 재판과정과 2차 피해 발생에 매우 복잡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
- 또래에 의한 집단 성폭력의 경우 친족 성폭력보다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원기관의 통합성 측면에서 볼 때, 피해 청소년들은 지원기관이 도움이 되었으나 각 부문 간 연계와 조정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례가 진행되는 각 부문마다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아 사소한 실수들이 피해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각 부문이 취약할수록 보호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는데 보호자가 직접 피해 청소년의 사례관리자가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재판과정의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지 않으면 안 되어 서비스 통합성이 좀 더 높아져야함을 시사함.
- 피해 청소년에게 재판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분노와 치유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건의 과정에서 다루어 수 있도록 사법체계와 지원체계의 변화 노력이 요구됨.
- 피해 청소년들이 사건 후 학교에 재적응 하는 것은 쉽지 않아 피해자 지원기관이 학교와 연계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4명의 남아 성폭력 피해자

〈표 5〉 남아 성폭력 피해자들의 분포

사례 번호	인터뷰		성별	연령	피해당시 연령	피해 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횟수							
E-1	E-1모	1	남	만13세	초5	성추행	스포츠 학원	스포츠 강사	고소
E-2	E-2모	1	남	만11세	초2	성추행	스포츠 학원	스포츠 강사	고소
E-3	본인	1	남	만15세	중1	성추행	시설	시설 선배	고소
E-4	본인	1	남	만17세	중2-중3	성추행	시설	시설 선배	고소

- 4명의 남아 성폭력 피해자들은 동성 가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례로, 여성 피해자들과 별개의 특성을 보였는데, 가해자는 또래인 시설 선배부터 어른인 스포츠 강사까지 다양한 연령분포를 보였지만, 피해유형은 성추행으로 나타났다.
- 남아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사건 자체가 가볍게 처리되고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남자는 성폭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성폭력 신고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2차 피해를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시점에서의 지원뿐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잠재되어있는 후유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개선점으로 제안하였음.
- 스포츠 시설 강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한 사례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의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취업제한 제도 등 가해자를 감독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수준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보임.

■ 성인 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표 6〉 가해자가 성인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분포

사례 번호	인터뷰		성별	연령	피해 연령	피해 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	고소 여부
	대상	횟수							
F-1	본인	2	여	만27세	만26세	성추행	피해자 집	학교 친구	고소
F-2	본인	1	여	만57세	만56세	성추행	비닐하우스 피해자 집	동네 주민	고소
F-3	본인	1	여	만24세	만24세	성추행	점 집	사이비 역술인	고소
F-4	본인	1	여	만56세	만55세	강간	가해자 집	동네 주민	고소
F-5	본인	2	여	만27세	만24세, 26세	강간	모텔	친구의 친구	고소
F-6	본인	2	여	만30세	만29세	성추행	출장지	회사 대표	고소
F-7	본인	1	여	만32세	만31세	성추행	집	동거남	고소
F-8	본인	1	여	만24세	만23세	강간	-	직장 상사 (학교친구)	고소
F-9	본인	1	여	만22세	만21세	강간	호수가	낯선 사람	고소
F-10	본인	1	여	만26세	만26세	강간	직장 숙소	직장 동료	고소 안함
F-11	본인	1	여	만29세	만28세	강간	-	직장 선배	고소

- 성인 성폭력 피해자 11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사례분석을 하였음.
 - 성인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 특히 직장 상사나 동료, 학교 선후배 등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임. 이렇게 조직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조직의 대응 미흡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비난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오히려 피해자가 떠나는 경우가 많았음.
 -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어릴 때 혹은 이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다는 점임.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는 아동기에나 성인이 된 후에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 어릴 때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에 대한 인지와 초기 대응이 매우 약했던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 성인기, 전 연령에 걸쳐 생애주기별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함.

- 지원기관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성폭력 전문지원 기관이 확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례들은 지원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본 연구에서 피해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원기관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뢰할만한 지원기관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경험을 토로했음.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기관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함.
- 지원기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폭력피해자 전문 지원 기관과, 전문기관 뿐 아니라, 관련 위기개입 지원기관, 연계기관도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 관련 정확한 정보와 성폭력 피해자 초기 대응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 성폭력 피해자 사례들도 주변의 편견과 피해자 낙인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성폭력은 폭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인식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3 정책제언

제안1) 성폭력피해자 측의 신속한 대응 지원

- 성폭력 피해 직후 피해자 측이 지원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거나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범죄입증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기관, 긴급전화의 홍보 및 응급대응 수칙에 대한 홍보 및 안내문이 학교, 병원, 경찰,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되어야 함.

제안2) 아동성폭력 피해의 조기 발굴

- 아동기 성폭력 피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발굴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성폭력 피해를 직접 말하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에 언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녀의 이상행동과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함. 그러나 부모가 부재하거나 생계 등의 이유로 자녀양육에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후견인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제3자에 의한 피해 발굴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 초중등학교 선생님, 소아과 의사 등 아동의 신체 상태나 행동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자료가 배포되어야 함.

제안3) 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접근성 및 서비스 강화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홍보 확대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해 직후 피해자 측이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모르고 있어도 사건 발생 이

후 신속하게 이들 기관을 발굴하거나 연계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는 통합적인 안내 책자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에 추가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해 경찰이 구두나 책자로 소개하는 것이 중요함.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강화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의 성격과 서비스 지원 및 법적 절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진술 단계부터 피해자 지원서비스 종사자와 전문가가 개입해야 하고, 지원체계 서비스에 대한 통합 매뉴얼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함.

● 피해자를 배려하는 진술녹화

- 진술자료 법적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진술에 앞서 진술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피해자가 수사의 법적 의미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진술에 임하면 구성요건에 적합한 증언을 하는데도 긍정적이고, 수사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며, 피해자 지원자, 상담원, 피해자 변호사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어야 함.

제안4)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공판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

- 법정에서의 피고인 변호사의 무분별한 질문으로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 고통에 대한 판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법관의 인식전환을 위해 공판 중 어떠한 질문에 어떠한 통제를 해야 하는가에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 경찰, 검사, 법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

- 경찰,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과정에서 성폭력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함.

●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팀대응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상담, 복지, 법률 관련 서비스가 분절되어 제공되어 성폭력 피해자는 반복 진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인력부족으로 개별 사건마다 팀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하나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나 경찰 수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팀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만함.

● 형사사법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

- 성폭력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은 피해자로서 이용이 보장된 의료·심리상담 및 법률서비스에 대해 공지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안내책자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공지해주어야 함.

● 법률 조력인 제도 활성화

- 피해자 특성에 맞게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어야 하며, 진술녹화시 법률조력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경찰과 검찰은 조사, 공소제기 여부, 공판관련 사항 등에 대해 법률조력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 조사 및 공판에서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함(백미순 외, 2012:98-107).

● 피해자 정보보호 및 가해자 접근 금지를 위한 사전조치

- 가해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나 피해자 비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경찰은 사건 접수 초기 단계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측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이후 상대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상대에게 연락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공지하고 이와 관련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또 피해자에게는 신

고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야 할 것이며, 향후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도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과제임.

●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강화

-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양형기준 재검토 및 양형요소의 적극적 탐색, 형사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공판시 피해자 익명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피해자 신정정보 보호제도 활용 모니터링 실시, 입증 어려운 사건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는 사건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며 수사 진행 등이 필요함.

● 회복적 사법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 고소이후 주위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심, 비난,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다 공식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면서 심리적 치유를 느끼므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회복적 형사사법모델의 도입을 논의해 볼 만하며, 이것은 응보적 사법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할 수 있고 가해자의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음(박상식·이창호, 2008:113-114).

제안5)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별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국비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연말에 이르면 기금이 고갈되어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제안6) 성폭력피해자 당사자 모임 지원

-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라는 공통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피해자들은 당사자 모임에서 큰 위안을 얻음. 당사자 모임은 위로, 공감, 치유, 경험공유, 정보교환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서비스의 질이나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사자 모임은 정부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모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임.

4 기대효과

- 아동, 청소년, 성인 집단별 피해자 사례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해 집단별 특성과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원체계 및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신고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박상식·이창호(2008),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한국학술정보(주)
- 백미순 외(2012),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 정정희(2011), 『3장 열림터, 그녀들의 쟁한 순간』,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이매진.
- Herman, Judith Lewis. (1981), 『Father-Daughter Incest』 박은미 외 옮김(2010), 『근친성폭력』, 삼인.

주관부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